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32권 제3호(통권 제127호, 2021・가을)

경찰 신뢰 영향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

장재성*

국 | 문 | 요 | 약

현대 행정에서 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신뢰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공권력을 대표하는 기관인 경찰의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관련하여 학계에서 경찰 신뢰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실시해 온 결과, 우리나라 경찰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발견되었으나, 개별적 접근 외에 경찰 신뢰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은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국내의 경찰 신뢰에 관한 연구들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통계적 재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메타분석 방법은 사회과학 분야의 메타분석 에서 자주 활용되는 상관계수(r)를 활용한 평균효과크기 추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대상 연구는 국내 경찰 신뢰에 대한 양적 연구 41편으로, PRISMA 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검색, 선정하였다. 먼저 기존 연구의 변수들을 정리한 뒤 이론적 배경과 성격들을 고려하여 변수들을 인구통계학적 요인, 도구적 시각 요인, 표현적 시각 요인, 개인 가치관 요인, 경찰 공정성 요인, 경찰관의 태도 요인으로 범주화하여 각 범주의 평균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이어 각 범주별 세부 변수들에 대한 평균효과크기를 추정하고, 각 연구의 출간연도 및 경찰 신뢰 측정 방식(단일 문항 / 복합 문항)을 조절변수로 하여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향요인의 범주 중 우리나라 경찰 신뢰에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낸 것은 경찰 공정성 요인이었으며, 개인 가치관 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효과크기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 변수 중에서는 경찰 효과성 인식과 경찰 공정성, 친절성과 청렴성의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찰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 시 시민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보다는 경찰 효과성과 공정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제고하고, 일선에서 시민과 접하는 경찰관들의 태도를 개선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1.9.30.3.31.

❖ 주제어 : 경찰 신뢰, 메타분석, 경찰 공정성, 경찰 효과성, 효과크기

* 경찰대학 경찰학과,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 E-mail: jjs3339@p;olice.go.kr

Ⅰ. 들어가는 말

현대 행정에 있어 국민의 신뢰는 행정에의 자발적 협조와 성실한 세금납부, 유능한 인재의 공직 유입 등 국정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장용진, 2013). 특히, 국민의 생명, 재산의 보호, 사회질서 유지를 임무로 하며, 공권력을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찰의 경우 권력의 주체인 시민들의 신뢰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홍승표·라광현, 2019; Nix et al, 2015).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경찰 정당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법준수 의지를 제고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경찰활동에 협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Sampson & Bartusch, 1998; Brown & Benedict, 2002; Skogan, 2009; Tyler, 2004; Taylor & Lawton, 2012). 반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경찰의 법 집행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범죄 예방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Brown & Benedict, 2002: 황의갑·한성일, 2016).

경찰에서도 신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찰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경찰의 뿌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수사구조 개혁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경찰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에 주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제도를 통해 수사에 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정책위원회」도 신설하였다(경찰백서, 2020).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저조한 경찰 신뢰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며(이미정, 2013; 정보성·이창배, 2018; 조준택, 2020), 실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도 경찰은 정부기관 중 최하위 수준의 신뢰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1)]

이를 개선하고자 국내 학계에서도 경찰 신뢰 영향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왔다. 초기 연구들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이나(Correia et al., 1996; 이헌수, 1999; 유영현·신성식, 2008), 경찰 접촉 경험(주재진, 2008; 이재

1) 한국정책리서치가 2019년 발표한 기관신뢰도 발표결과에 따르면 경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31%로, 국회(9%), 검찰(23%), 노조(30%)에 이어 최하위 수준이었으며(동아일보, 2019. 8.7. 자. '한국정책리서치, 기관·대인 신뢰도 조사발표, 금융기관 정부보다 더 신뢰'), 한국리서치의 2020년 조사에서는 경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26%에 불과하였다(노컷뉴스, 2021. 2. 1.자, '신뢰 바닥난 공룡 경찰... 믿어도 되나요')

영, 2011; 김학범, 2015; 김수민·전용재; 2021)이 경찰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후 서구학계를 중심으로 경찰 신뢰에 대한 개별적 연구들이 도구적 요인과 표현적 요인의 두 가지 시각으로 정리되면서 국내 연구 역시 이러한 이론적 모델을 기반으로 개별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거나 양자의 영향력을 비교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Jackson & Bradford, 2009; Skogan, 2009; 황의갑, 2013; 장현석, 2013: 장현석, 2014a; 황의갑·한성일, 2016; 안희찬·장현석, 2019; 김영수 2019; 이용일·장현석, 2020). 최근에는 경찰 정당성(legitimacy) 이론에서 파생된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justice) 요인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고 있으며(임창호·김영수, 2018; 홍승표·라광현, 2019), 국가간 경찰 신뢰 요인의 비교연구도 진행되고 있다(장현석, 2014b; 황의갑·한성일, 2016; 황의갑·홍명기, 2020).

위와 같은 개별 연구들이 경찰 신뢰 영향요인을 경험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이론적 의미는 물론, 이를 통해 실제 경찰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하였음은 자명하다. 하지만, 일부의 요인, 특히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은 개별 연구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연구의 단편적 결과만으로는 경찰 신뢰 영향요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극복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간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경찰 신뢰에 관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메타분석은 동일 주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종합, 분석하는 방법론으로(황성동, 2020), 개별 연구에서 확인된 효과크기를 활용하여 통합된 효과크기를 도출하는데 유용하며, 하위집단분석을 통해 개별 요인들의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정리 및 비교할 수 있다(Pinquart & Sorensen, 2000; DiMatteo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Hedges & Olkin의 메타분석방법을 적용한다 (Hedges & Olkin, 1985; Borenstein et al., 2009; 황성동, 2020). 이 방식은 각 연구의 상관계수(r)를 Fisher'z 값으로 변환하여 통합한 뒤 다시 상관계수로 전환하여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제 2장에서는 경찰 신뢰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결과들을 검토한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자료 수집 절차와 메타분석 방법론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제 4장에서 이에 따른 종합적 효과크기와 개별 변수의 효과크기 추정치를 제시한다. 이어 제 5장에서는 연구의

함의와 실천적 제언, 후속 연구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경찰 신뢰의 의의

경찰 신뢰는 경찰에 대한 가치관, 태도, 인식, 효율성, 공정성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일률적 정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찰 신뢰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도출되지 않고 있다(Jackson & Sunshine, 2007). Sun et al.(2013)은 ① 경찰 신뢰를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일반적 인식과 의견, ② 경찰에 대한 긍정적 태도나 평가 측면에서의 만족이나 정당성에 대한 인식, ③ 경찰의 성과나 활동의 결과에 대한 인식 3가지의 개념으로 구체화하였다. 이수창(2014)은 경찰 신뢰를 정부 신뢰 개념을 기초로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또는 경찰활동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로 정의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경찰 신뢰는 경찰조직이나 경찰의 일련의 활동에 대해 시민들이 지지하고 만족, 수용하는 태도나 인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재영, 2011)

경찰 신뢰는 권력의 주체인 시민들의 대리인으로서 경찰이 스스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지표임과 동시에(장현석, 2013), 실제 경찰에서 각 경찰관서의 평가 시 중요한 평가지표로도 활용되고 있다(황의갑, 2013; 조준택, 2020). 또한, 경찰 신뢰는 경찰 정당성의 근간이 됨은 물론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지지와 자발적 협력의 원동력이 된다(Sunshine & Tyler, 2003; 홍승표·라광현, 2019; 이용일·장현석, 2020). 다시 말해 경찰 신뢰는 단순히 정당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지지와 협조, 자발적 순응을 유발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적으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자원이라는 점에서 실천적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경찰 신뢰는 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방식을 활용하여 측정되고 있는데, 주로 단일 문항 방식과 복합 문항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일 문항 방식은 '당신은 경찰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는 형태의 단일 문항으로 경찰 신뢰를 측정하는 것이다(Jang et al., 2010; Cao et al., 2012; 장현석, 2013; 임창호·김영

수, 2018). 이에 비해 복합 문항 방식은 만족도, 공정성, 효율성 등에 대한 여러 질문을 종합하여 경찰 신뢰를 측정하게 된다.(Sunshine & Tyler, 2003; Ren et al., 2004; Jackson & Sunshine, 2007; 이재영, 2011; 황의갑·한성일, 2016; 노연상·임창호, 2017; 홍승표·라광현, 2019; 조준택, 2020; 홍승표, 2020; 김수민·전용재, 2021).

2. 경찰 신뢰 영향요인

가. 인구통계학적 요인

초기의 연구들은 응답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요인, 즉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 여부, 수입, 거주지의 특성(농어촌 / 도시) 등이 경찰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후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통제 변수로 활용되면서 가장 빈번하게 연구되어 왔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경찰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부 변수의 경우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성별의 경우 여성일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나타난 연구가 있는 반면(Cao & Zhao, 2005; Jang et al., 2010; 유영현·신성식, 2008; 류준혁, 2012; 장현석, 2014a), 일부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경찰 신뢰가 높다고 보고하였으며(Correia et al., 1996),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이재영, 2011; 황의갑 2013; 송영남 외, 2015). 교육수준 역시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장현석, 2014b), 소득(수입) 역시 경찰 신뢰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있는 반면(조상현·최재용, 2015; 표정환, 2017; 전수민·전용재, 2021), 일부 연구에서는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현석, 2014a; 이용일·장현석, 2020).

한편, 연령의 경우 대다수의 연구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orreia et al., 1996; 류준혁, 2012; 황의갑 2013; 장현석, 2014a; 장현석·김소희, 2015). 이는 40대 이상부터 기성세대로서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적 경향을 가지게 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표정환, 2017).

나. 도구적 시각 요인

Jackson & Bradford(2009), Skogan(2009)은 개별적 연구에서 사용한 경찰 신뢰 영향요인들을 크게 도구적 시각과 표현적 시각으로 분류하였다(장현석, 2014b). 도구적 시각은 경찰 신뢰가 경찰 업무가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한 평가의 도구로 활용된다고 보는 관점으로(장현석, 2013), 경찰활동의 성과가 곧 경찰에 대한 신뢰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보는 시각이다(Skogan, 2009). 이 이론에 따르면 범죄피해 경험이나 높은 범죄율은 경찰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직접적 범죄피해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역시 경찰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Nix et al., 2015). 경찰과의 접촉 역시 경찰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으로 범죄신고, 합동순찰과 같은 자발적 접촉은 경찰의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체포나 불심검문, 교통단속과 같은 비자발적 접촉은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가정된다(Huang & Vaughn, 1996). 한편, 시민들이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인식하거나 효과적으로 경찰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경찰 신뢰를 향상시키는 요인이 된다(Merry et al., 2012).

도구적 시각 요인에 대한 개별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먼저 범죄피해 경험은 대체로 경찰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ao et al., 1996; Ren et al., 2005; 장현석, 2014a; 강지현, 2016; 표정환, 2017). 반면 범죄피해 경험이 경찰 신뢰에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연구들도 다수 있는데, 이들은 범죄피해로 인해 경찰의 조력을 받은 경험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박영규, 2008; 황의갑, 2013; 황의갑 외 2016). 황의갑·홍명기(2020)은 범죄피해 경험을 직접적 경험과 간접적 경험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직접적 범죄피해 경험은 경찰 신뢰에 부적 영향을 미치지만, 간접 경험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범죄율과 이로 인한 범죄의 두려움은 주로 경찰 신뢰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Jang et al., 2010; Cao et al., 2012; Nix et al., 2015;. 강지현, 2016; 장현석, 2014a; 황의갑 외 2016). 범죄 위험이 높을수록 지역주민은 경찰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연구들은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류준혁의 연구(2012)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경찰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저자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경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경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경찰과의 접촉과 관련하여 신성식(2006)은 경찰과의 접촉이 경찰 신뢰와 정의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Scaglion & Condon(1980), Huang & Vaughn(1996)은 시민들의 자발적 경찰접촉은 경찰 신뢰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비자발적 접촉은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여 신뢰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한편, 가시적인 순찰이나 경찰활동에 대한 효과성 인식은 주로 경찰 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Merry et al., 2012; 표정환, 2017; 유재두, 2018; 홍승표·라광현, 2019; 홍승표, 2020)

다. 표현적 시각 요인

표현적 시각 이론에서는 경찰 신뢰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찰의 성과나 효과성이 아니라 지역 시민들의 결속이나 사회적 질서, 도덕적 가치의 수호 수준이라고 설명한다(Jackson & Sunshine, 2007). 즉 시민들은 범죄피해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지역사회의 유대가 약화되고 무질서가 심화될 경우 경찰이 지역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수호하는데 실패했다고 보고 낮은 신뢰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는 지역주민간의 유대와 신뢰, 공동체 의식과 비공식적 사회통제나 무질서의 수준, 활발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등이 경찰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한다(조준택, 2020).

개별 선행연구들에서 지역사회 유대감, 비공식적 사회통제 수준, 지역 또는 대인 신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는 대체적으로 경찰 신뢰와 강한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ao et al., 1996; Ren et al., 2005; Jackson & Bradford, 2009; 황의갑. 2013; 장현석, 2014a; 표정환, 2017; 임창호, 2018; 황의갑 외 2020; 조준택, 2020). 이와 반대로 지역사회 무질서는 대체로 경찰 신뢰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ao et al., 1996; Jackson & Bradford, 2009; 류준혁, 2012; 강지현, 2016; 황의갑·한성일, 2016). 하지만 황의갑의 연구(2013)에서는 지역사회 무질서에 대한 인식이 경찰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도구적 요인과 표현적 요인 중 어느 요인이 경찰 신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이 표현적 요

인이 도구적 요인에 비해 경찰 신뢰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Merry et al., 2012; Nix et al., 2015; 황의갑, 2013; 장현석 2014a; 황의갑·한성일, 2016; 안희찬·장현석, 2019; 조준택, 2020).

라. 개인 가치관 요인

선행연구에 따르면, 시민 개개인의 가치관이나 삶에 대한 인식 역시 경찰 신뢰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장현석, 2013; 장현석, 2014a; 표정환, 2017). 즉 조사 대상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나, 인권의식, 사회적 불평등이나 부패정도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 정도,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경찰 신뢰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가치관과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삶의 만족도는 다수의 연구에서 경찰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장현석, 2013). 경찰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권존중 의식 역시 경찰 신뢰와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장현석, 2013). 반면,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부패정도에 대한 인식은 경찰 신뢰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장현석, 2014b).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결과는 매우 독특한데, Almond & Verba(1963) 연구에서 경찰 신뢰와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Cao et al.(2012)와 장현석·김소희(2015)의 연구에서는 경찰 신뢰는 U자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주주의가 매우 저조한 국가와 민주주의가 매우 잘 발달한 나라에서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은 반면, 민주주의가 발전 과정에 있는 국가에서는 경찰 신뢰가 낮다는 것이다. 정치성향의 경우 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났는데(Cao et al., 1998; Jang et al., 2010), 이는 경찰이 사회질서 유지와 법집행이라는 전통적이고 안전지향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Jang et al., 2010).

마. 경찰 활동의 공정성 요인

최근 Tyler와 그의 동료들이 제안한 경찰 정당성 이론이 새로운 경찰활동의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경찰 정당성 이론은 시민들이 법을 준수하고 경찰에 협력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경찰활동의 공정성과 정당성이라고 설명한다. 즉 경찰활동이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은 경찰이 정당하다고 인식하게 되고, 경찰이 정당하다고 인식할수록 법에 순응하며 경찰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이다(Tyler, 1990; Tyler & Sunshine, 2003; Resig et al., 2007). 이에 따르면 경찰의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은 법 준수와 협조의사 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만족감과 신뢰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Tyler & Hou, 2002). 경찰 정당성 이론은 주로 영미에서 논의되었으나,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경찰활동이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 역시 높게 나타났다(임창호, 2018; 홍승표·라광현, 2019; 홍승표, 2020; 임창호, 2020)

바. 경찰관의 태도 요인

도구적 시각에서는 경찰과의 접촉이 경찰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목되었으나, 일부 학자들은 경찰과의 접촉 자체보다는 접촉 시 경찰관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더 중요하며, 경찰관의 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이로 인한 만족감이 경찰 신뢰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주장 하였다(Brandl et al., 1994; Brown & Benedict, 2002; Tyler & Sunshine, 2003; 류준혁, 2012). 즉, 시민과 마주하는 일선 경찰관의 책임성, 친절성, 청렴성, 협력성 등에 대해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는 것이다(주재진 2008; 김찬선·강호정, 2012).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능력, 선의, 성실성이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역량, 배려, 언행의 일관성에 따라 상대의 신뢰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Mayer et al., 1995; Mishra, 1996) 치안현장에서 시민들을 대하는 경찰관의 태도 역시 경찰 신뢰도의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김찬선·강호정, 2012).

3.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와 연구문제 설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 신뢰에 대해서는 다각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경찰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발견, 검증되었다. 위에서는 언급하지 않았

으나, 최근에는 개인 수준의 변수 외에도, 지역사회 환경과 관련된 변수, 즉 실업이나 빈곤, 이혼율, 자살율, 유흥시설 밀집도 등도 경찰 신뢰 영향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조준택, 2020). 연구의 누적과 반복, 변수의 다각화는 학술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연구체계 복잡화를 야기하여 후행 연구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겪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경찰 신뢰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메타분석의 방법으로 통합,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경찰 신뢰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제고하고, 그간의 연구경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향후 연구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도구적 시각과 표현적 시각 외에 경찰 신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이 발견된 만큼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이론적 배경에 따라 범주화하여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경찰 신뢰 영향요인에 관한 변수들은 어떻게 범주화할 수 있는가?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인구통계적 변수와 범죄 두려움, 경찰 접촉 관련 변수들이 경찰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상반되고 있다. 선행연구 결과가 상반될 때 메타분석을 통한 통계적 재분석이 새로운 지식 발견의 단초가 될 수 있다(장재성, 2020a; 황성동, 2020). 뿐만 아니라, 경찰 신뢰와의 관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된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변수들도 그 효과크기는 연구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2]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인과관계의 확인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개별 연구들을 통합하여 변수간 관계의 방향성과 통합 효과크기를 도출할 수 있는 메타분석이 매우 유용하다((Pinquart & Sorensen, 2000; Aloe & Thompson, 2013).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 통합을 통해 표본의 한계를 극복하고 좀 더 신뢰성 있고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황성동, 2020). 또한 경찰 신뢰 요인 중 어떤 범주와 세부요인이 경찰 신뢰와 더 큰 효과크기를 보이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한정된 자원을 경찰 신뢰와 좀 더 큰 효과크기를 보이는 요인들을 개선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즉, 메타분석은 경찰 신뢰 제고를 위한 실천적 전략 도출에 매우 유용한 근거를

2) 예를 들어, 경찰 효과성에 관한 인식의 경우, 대다수의 연구에서 경찰 신뢰와의 상관관계가 0.5 이상으로 상당히 큰 수준의 효과크기를 보이고 있으나 김종길(2013)의 연구에서는 상관계수가 0.35로 나타났으며, 김혜원(2017)의 연구에서는 상관계수가 0.07에 불과하였다.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두 번째 연구문제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2-1. 경찰 신뢰에 대한 범주별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2-2. 경찰 신뢰에 대한 세부 요인별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메타분석의 또 다른 장점은 단순히 개별 연구를 통합하여 효과크기를 제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과크기에 영향을 줄 만한 조절변수들을 찾아내어 메타회귀(또는 메타아노바)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로 조절변수로 활용되는 변수에는 연구방식, 출간형태(학술/학위), 출판연도 등이 있다(황성동, 2020). 경찰 신뢰는 시대적 상황과 세대효과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장현석·김소희 2015). 또한, 경찰 신뢰 개념의 측정은 크게 단일 문항 방식과 복합 문항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신뢰 개념의 측정 방식에 따라 연구에서 측정된 효과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여부 역시 매우 흥미로운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타회귀분석을 통해 각 연구들의 출간연도와 경찰 신뢰의 측정방식이 효과크기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3-1. 출간연도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는 어떠한가?
경찰 신뢰 측정방식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는 어떠한가?

Ⅲ. 연구설계와 방법

1. 연구대상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메타분석 대상은 경찰 신뢰에 대한 국내의 계량 연구이다.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는 기관 자체 요인 외에도 다양한 문화적, 환경적, 사회적, 정치적 원인이 존재한다(Putnam, 1993; Fukuyama, 1995; Newton, 2009). 앞서 살펴본 경찰 신뢰 영향요인 중 표현적 시각 요인들은 이러한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한국 경찰과 외국 경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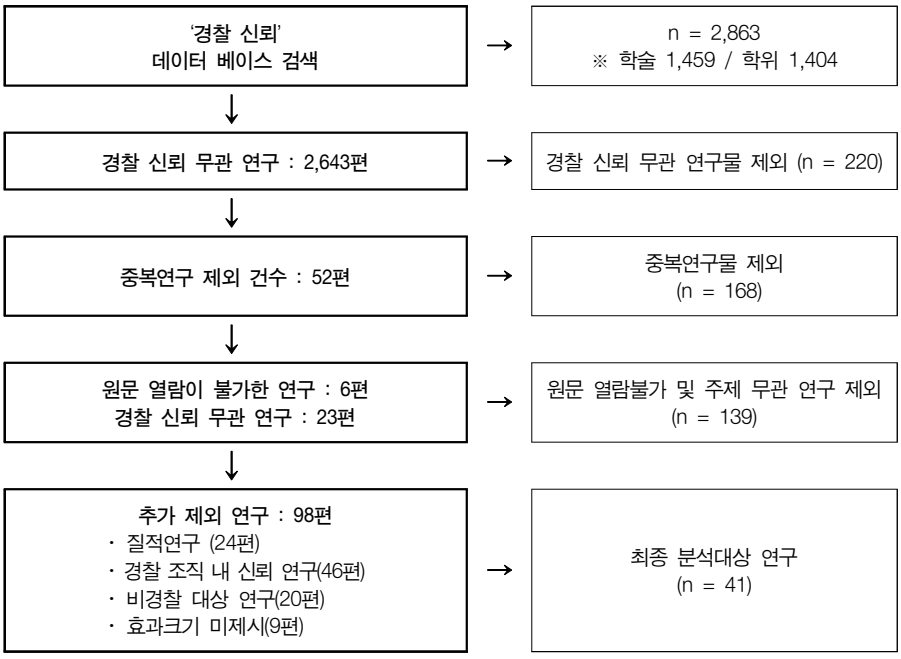
신뢰 수준을 비교한 연구들 역시 각 국가의 경찰의 역사적 형성과정, 사회적·정치적 발달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장용진, 2013; 황의갑 2013; 장현석 2014b).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경찰에 특화된 신뢰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므로, 분석 자료를 우리나라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한정하였다.

연구대상 자료의 수집은 Moher et al.(2009)이 제안한 PRISMA(Preferred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먼저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 및 DBpia(https://www.dbpia.co.kr)에서 '경찰 신뢰'를 키워드로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된 논문은 국내학술논문 1,459편(Riss 959, DBpia 500) 학위논문은 1,404편이었다. 이를 대상으로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경찰 신뢰와 명백하게 무관한 논문 2,643편을 우선 제외하였다.[3] 1차 선정된 220편 중 중복된 연구 52편, 경찰 신뢰와 무관한 연구 22편, 원문확인이 불가능한 연구 6편을 제외한 140편을 2차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차 선정에서는 논문의 내용을 확인하여 메타분석에 부적합한 논문들을 제외하였다. 이 과정에서 질적연구 24편,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아닌 경찰조직 내의 상사에 대한 신뢰나 구성원의 조직 신뢰를 다룬 연구 46편, 연구대상이 한국 경찰이 아닌 연구 20편, 효과크기를 제시하지 않은 논문 9편을 추가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41편의 논문을 메타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상의 선정과정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선정된 분석대상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출판연도의 경우 2016년 이후 연구물이 63.4%로 경찰 신뢰에 관한 계량연구가 최근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 신뢰의 측정은 단일 문항(14.6%)보다는 복합 문항(85.4%)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시민을 설문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특성상 500명 이상 대표본 연구가 과반(61%)을 차지하고 있다.

3) '경찰', '신뢰'는 각 논문에서 주제어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어 많은 양의 논문이 검색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분석대상 논문 선정 절차(PRISMA flowchart)



〈표 1〉 분석대상 연구물의 분포

구 분		빈도	%
출판연도	2000 ~ 2005년	2	4.9
	2006 ~ 2010년	3	7.3
	2011 ~ 2015년	10	24.4
	2016년 이후	26	63.4
	계	41	
경찰 신뢰측정방식	단일 문항	6	14.6
	복합 문항	35	85.4
	계	41	
표본 수	200개 미만	2	4.9
	200 ~ 499개	14	34.1
	500 ~999개	15	36.6
	1000개 이상	10	24.4
	계	41	

2. 코딩 및 분석 과정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연구들을 메타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각 연구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코딩하였다. 먼저 연구연도, 저자, 연구의 제목을 표로 정리하고 통합된 효과크기 산출에 필수적인 표본 수, 상관계수를 추출하였다. 경찰 신뢰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여러 가지 변수들이 경찰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연구에서 복수의 상관계수 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각 변수의 상관계수를 개별 값으로 간주하고 코딩하였다(Borenstein et al., 2009). 일부 논문에서는 상관계수를 생략하기도 하는데 상관계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회귀분석 결과에 제시된 t값을 Wolf(1986)이 제시한 공식[4]에 따라 상관계수로 전환하여 코딩하였다. 아울러 논문에 제시된 경찰 신뢰의 측정방식을 확인하여 단일 문항 측정은 '0', 복합 문항 측정의 경우 '1'로 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메타분석 방법은 국내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Hedges & Olkin의 방법이다. 해당 메타분석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별 효과크기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다. 이질성(Heterogeneity)의 판단기준은 동질성 검증의 Q통계량에 대한 χ^2 검증과 I^2 값을 사용한다.[5] 동질성 검증 결과는 메타분석 시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 model)과 무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사용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된다. 고정효과모형은 연구의 모집단 효과크기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개별 연구에서 발생한 실제 차이는 표본 표집의 오류로 본다. 반면, 무선효과모형에서는 연구간 모집단의 효과크기가 모두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무선효과모형이 고정효과모형에 비해 좀 더 보수적인 결과를 산출하며 신뢰구간도 보다 넓게 나타난다(황성동, 2020).

다음으로 출판편향을 확인한다. 출판편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된 논문들이 주로 출판되게 되므로 출판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면 통계적으로

4) Wolf(1986)은 각 연구에 제시된 t, F, χ^2 값 등을 상관계수로 전환하는 공식을 제시하였으며, t값의 경우 $r = \sqrt{\frac{t^2}{t^2 + df}}$ 의 수식을 통해 상관계수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였다.

5) Q통계량의 χ^2 검증 시 p값이 0.05 이하로 유의하면 이질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I^2 값은 25% 이하이면 이질성이 낮고, 25-75%이면 이질성이 중간정도, 75% 이상이면 이질성이 높다고 해석한다(Higgins et al., 2003).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된 연구들이 누락되어 발생하는 편향을 의미한다. 메타분석에서는 출판편향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이며, 출판편향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깔대기 도표(funnel chart)와 Egger et al.(1997)이 제안한 회귀식을 통해 출판편향을 확인하고 출판편향의 정도 확인을 위해 보조적으로 Rosenthal(1979)의 안정성 계수(Fail-safe N) 방법을 활용한다. Hedges & Olkin 메타분석의 특징은 평균효과크기의 산출 방식에 있다. 이 방법에 따르면 각 연구에 제시된 효과크기(주로 상관계수)를 좀 더 표준화된 통계치인 Fisher z값으로 전환하여 통합 후 다시 상관계수로 변환하게 제시하게 된다(Hedges & Olkin, 1985; Borenstein et al., 2009; 황성동, 2020). 산출된 효과크기는 일반적으로 Cohen(1998)의 기준에 따라 해석한다(황성동, 2020).[6)]

이상의 분석에는 R 4. 1. 1.과 R-studio 1.4.1717 버전이 사용되었다.

Ⅳ. 분석 결과

1. 독립변수의 범주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 신뢰 영향요인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며,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수들의 성격과 특징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범주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장재성, 2020a; 황성동, 2020). 먼저 분석대상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들을 모두 추출하였다.[7)] 최종적으로 총 6개의 범주와 33개의 변수, 256개의 효과크기가 도출되었다.[8)]

성별, 연령, 기혼 여부, 교육, 소득, 거주지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 앞

6) r = 0.1 작은 크기 / r = 0.3 중간 크기 / r = 0.5 큰 크기

7) 단,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는 메타분석의 특성상 효과크기의 사례수가 1개인 변수들은 제외하였다.

8) 메타분석에 투입된 연구물은 41개이지만 효과크기가 256개인 것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다수의 변수들과 경찰 신뢰의 관계를 검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 논의한 바와 같이 최근의 연구는 경찰 신뢰영향 요인을 크게 도구적 시각 요인과 표현적 시각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Jackson & Bradford,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에 따라 도구적 시각요인과 표현적 시각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한편, 개인 가치관과 관련된 요인들은 일부 연구에서 이를 표현적 시각요인으로 분류하기도 하였으나(표정환, 2017), 표현적 시각 이론이 경찰에 대한 신뢰는 경찰의 효과성이나 성과보다는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지역 질서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Skogan, 2009)임을 감안할 때, 민주주의나 인권, 도덕에 대한 개인적 가치관이나 정치성향, 불평등과 부패인식, 만족도에 대한 인식은 별도의 범주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표현적 시각 요인과 개인적 가치관 요인을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경찰 공정성과 관련된 요인은 기존의 도구적, 표현적 시각 이론이 아닌 경찰 정당성 이론에서 파생된 개념인 만큼 구분하여 범주화하였으며, 경찰관의 태도 요인 역시 경찰 전반에 대한 추상적 이미지가 아니라 현장에서 시민들이 인식한 경찰관의 태도라는 측면에서 다른 요인들과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별도로 범주화하였다.

〈표 2〉 경찰 신뢰 영향요인의 분류

범주	개별 변수	사례 수(k)	개별 변수	사례 수(k)
총 효과크기 사례수	k = 256			
인구통계학적 요인 (k=64)	① 성별	18	④ 교육수준	11
	② 연령	19	⑤ 소득	10
	③ 기혼	4	⑥ 거주지(도시=1)	2
도구적 시각 요인 (k=73)	① 범죄 직접 경험	13	⑤ 경찰접촉(자발)	6
	② 범죄 간접경험	5	⑥ 경찰접촉(비자발)	4
	③ 범죄 두려움	19	⑦ 순찰의 가시성	3
	④ 지역안전	9	⑧ 경찰효과성	14
표현적 시각 요인 (k=67)	① 대인 신뢰	8	④ 비공식 사회통제	15
	② 사회(법제도) 신뢰	5	⑤ 지역무질서	18
	③ 사회적 유대	20	⑥ 지역사회 경찰활동	2
개인 가치관 요인 (k= 17)	① 민주주의	2	④ 불평등 인식	2
	② 인권존중	4	⑤ 부패 인식	2
	③ 정치성향	4	⑥ 삶의 만족도	3
경찰 공정성 요인 (k=16)	① 경찰 공정성	16	-	
경찰관의 태도 요인 (k=19)	① 책임성	3	④ 전문성	2
	② 친절성	4	⑤ 시민과의 협력	2
	③ 청렴성	5	⑥ 만족도	3

2. 분석 모형의 선정

사회과학 분야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하나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동일 주제의 연구라 할지라도 세부적인 표본 선정 방식, 사용된 측정도구, 통계분석 방법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표본 오류 이외의 다른 오류를 인정하는 무선효과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경찰의 신뢰 요인에 대한 연구 역시 개별 연구마다 세부적인 표본 집단의 차이와 신뢰 개념의 측정방식 등이 다르므로 무선효과모형을 통해 보수적으로 평균효과크기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모형에 대한 이론적 판단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효과크기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Q 통계량의 χ^2 검정의 유의도가 0.001 이하로 유의하며, I^2값 역시 99%로 매우 높은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무선효과모형을 활용하여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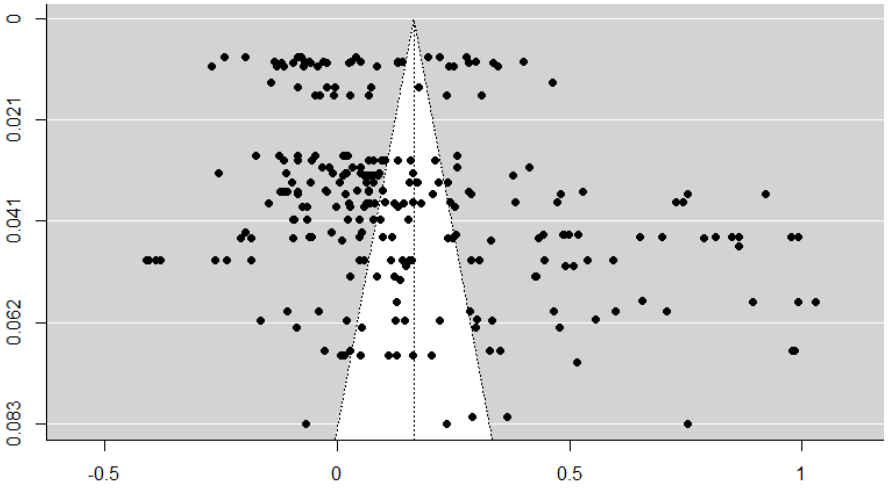
〈표 3〉 동질성 검증 결과

k(사례 수)	Q	p	df	I^2
256	27946.45	〈0.001	255	99.1

3. 출판편향의 확인

[그림 2]는 각 효과크기의 Fisher'z 값을 X축으로, 표준오차를 Y축으로 하는 깔대기 도표(funnel chart)이다. 깔대기 도표상의 효과크기들이 평균을 기준으로 일부 비대칭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다소의 출판편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깔대기 도표(funnel-chart)



출판편향을 Egger et al.(1997)의 회귀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유의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일부 편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출판편향이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한지 확인하기 위해 Rosenthal(1979)의 안정성 계수(Fail-safe N)를 산출한 결과, 그 값이 476,948로 매우 크게 나타나 출판편향이 연구의 신뢰성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9]되어 이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4. 평균효과크기 및 범주별 효과크기

본 연구에 사용된 전체 효과크기들의 평균효과크기는 0.161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이는 Cohen(1988) 기준에 의할 때 작은 효과크기($r = 0.1$)에 가까운 값이다.

9) Fail-safe N이 5k(연구에 투입한 사례 수, 본 연구에서는 256)+10보다 클 경우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Rosenthal, 1979).

〈표 4〉 평균효과크기

구분 (k)	Es (r)	Z	p	95% CI (Lower ~ Upper)
전체 평균(256)	0.161	12.41	<0.001	0.136 ~ 0.186

범주별로 평균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인 것은 경찰 공정성 요인(r = 0.538)이었으며, 이어 경찰관의 태도 요인(r = 0.393), 표현적 시각 요인(r = 0.174), 도구적 시각 요인(r = 0.121), 인구통계학적 요인(r = 0.037) 순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가치관 요인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의 효과크기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만, 이러한 결과만으로 도구적 시각 요인이나 표현적 시각 요인이 경찰 공정성 요인과 경찰관의 태도 요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효과크기가 작다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다. 도구적 시각 요인과 표현적 시각 요인에는 경찰 신뢰와 부적 상관을 가지는 요소와 정적 상관을 가지는 요소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범주별로 세부분석을 통해 변수별로 평균효과크기를 추정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표 5〉 범주별 평균효과크기

구분 (k)	Es (r)	Z	p	95% CI (Lower ~ Upper)
인구통계학적 요인(64)	0.037	2.82	<0.005	0.011 ~ 0.063
도구적 시각 요인(73)	0.121	5.76	<0.001	0.08 ~ 0.162
표현적 시각 요인(67)	0.174	5.95	<0.001	1.118 ~ 0.23
개인 가치관 요인(17)	0.077	1.66	0.097	-0.014 ~ 0.168
경찰 공정성 요인(16)	0.538	7.22	<0.001	0.412 ~ 0.644
경찰관의 태도 요인(19)	0.393	6.45	<0.001	0.281 ~ 0.494

5. 세부 변수별 효과크기

여기서는 각 범주별 세부 변수들의 평균효과크기의 추정치를 산출하여 비교분석 해보고자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총 효과크기의 사례 수(k)가 3개 이하인 변수들은 충분한 연구가 누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세부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공정성 요인은 한 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 세부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먼저 인구통계적 요인의 세부 변수별 효과크기는 대부분 매우 작은 수준의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방향성 역시 일관되지 않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은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관련하여 서로 상반된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메타분석을 통해 이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연령은 다수의 연구에서 경찰 신뢰와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Jang et al., 2010; 류준혁, 2012: 황의갑, 2013), 본 연구에서도 연령과 경찰 신뢰는 긍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크기는 작은 효과크기에 불과하였다(r = 0.109).

〈표 6〉 인구통계적 요인 변수별 효과크기

구분 (k)	Es (r)	Z	p	95% CI (Lower ~ Upper)
성별(남=1)(18)	0.008	0.63	0.531	-0.017 ~ 0.033
연령(19)	0.109	6.23	<0.001	0.075 ~ 0.143
기혼(기혼=1)(4)	0.081	0.17	0.862	-0.084 ~ 0.1
교육수준(11)	-0.014	-0.69	0.492	-0.053 ~ 0.25
소득(10)	0.029	1.10	0.27	-0.023 ~ 0.081

두 번째, 도구적 시각 요인의 세부변수별 효과크기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인 것은 경찰 효과성에 대한 인식(r = 0.587)으로 큰 효과크기에 해당된다. 그 외 다른 변수들은 효과크기가 유의하지 않거나(범죄 간접 경험, 지역안전 인식, 비자발적 경찰 접촉), 유의한 효과크기를 보인 경우에도 대부분 0.1 수준의 작은 효과크기를 보였다(범죄 직접 경험, 범죄 두려움, 자발적 경찰 접촉).

〈표 7〉 도구적 시각 요인 변수별 효과크기

구분 (k)	Es (r)	Z	p	95% CI (Lower ~ Upper)
범죄 직접 경험(13)	-0.052	-4.33	<0.001	-0.075 ~ -0.028
범죄 간접 경험(5)	-0.056	-1.58	0.114	-0.125 ~ 0.014
범죄 두려움(19)	-0.071	-3.38	<0.001	-0.11 ~ 0.03
지역안전(9)	0.056	0.82	0.414	-0.076 ~ 0.187
경찰접촉(자발)(6)	0.107	4.47	<0.001	0.060 ~ 0.158
경찰접촉(비자발)(4)	-0.042	-1.30	0.192	-0.106 ~ 0.021
경찰효과성 인식(14)	0.587	7.59	<0.001	0.462 ~ 0.69

셋째, 표현적 시각 요인의 세부 변수별 효과크기는 <표 8>과 같다.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인 것은 사회(법제도)에 대한 신뢰(r = 0.325)였으며, 가장 작은 효과크기를 나타낸 지역무질서(r = -0.125)는 경찰 신뢰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외 다른 변수들은 대부분 중간 크기 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도구적 시각 요인과 표현적 시각 요인을 비교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표현적 시각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들의 경찰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보고하고 있는데(Merry et al., 2012; Nix et al., 2015; 황의갑, 2013; 장현석 2014a; 황의갑·한성일, 2016; 안희찬·장현석, 2019; 조준택, 2020), 본 연구에서도 도구적 요인 중 경찰 효과성의 인식을 제외하면 대체로 표현적 시각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들의 효과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표현적 시각 요인 변수별 효과크기

구분(k)	Es(r)	Z	p	95% CI(Lower ~ Upper)
대인 신뢰(8)	0.251	5.07	<0.001	0.156 ~ 0.341
사회(법제도) 신뢰(5)	0.325	10.04	<0.001	0.265 ~ 0.382
사회적 유대(20)	0.251	11.47	<0.001	0.208 ~ 0.292
비공식 사회통제(15)	0.292	10.20	<0.001	0.239 ~ 0.345
지역무질서(18)	-0.125	-6.41	<0.001	-0.163 ~ -0.087

마지막으로 개인 가치관 요인과 경찰관의 태도 요인에 대한 변수별 효과크기는 <표 9>와 같다. 친절성(r = 0.478)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인권존중(r = 0.325), 청렴성(r = 0.294), 정치성향(r = 0.18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안현장에서 경찰관과 접할 때 경찰관이 친절하고, 청렴하다고 느낄수록 경찰을 신뢰하게 되며, 시민 개인의 인권존중 인식이 높을수록,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도 경찰관의 친절, 청렴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주재진, 2008; 김찬선·강호정, 2012; 노연상·임창호, 2017), 인권존중 의식과 보수적 정치성향 또한 경찰 신뢰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현석, 2013; 장현석, 2014b).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 개인 가치관 요인 및 경찰관의 태도 요인 변수별 효과크기

구분(k)	Es(r)	Z	p	95% CI(Lower ~ Upper)
인권 존중(4)	0.325	2.66	0.008	0.088 ~ 0.527
정치 성향(보수=1)(4)	0.189	5.65	<0.001	0.071 ~ 0.146
친절성(4)	0.478	3.49	<0.001	0.224 ~ 0.671
청렴성(5)	0.294	2.16	0.03	0.028 ~ 0.521

6. 메타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효과크기의 이질성 원인을 탐색하고, 연구의 출간시기와 경찰 신뢰의 측정 방식(단일 문항/복합 문항)에 따라 효과크기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효과크기가 충분히 누적된 인구통계적 요인, 도구적·표현적 시각 요인, 경찰 공정성 요인에 대한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범주에서 출간시기와 경찰 신뢰 측정방식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Ⅴ. 논의 및 결론

여러 연구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경찰 신뢰는 경찰 조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메타분석을 통해 그간의 경찰 신뢰에 관한 연구들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범주별로 평균효과크기를 추정함으로써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연구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 신뢰에 대한 연구경향 분석결과, 최근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복합 문항 방식을 활용하여 경찰 신뢰를 측정한 연구와 500명 이상 대표본을 활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기존 학계에서 주로 논의되는 도구적·표현적 시각 요인 외에 인구통계학적 요인, 개인 가치관 요인, 경찰 공정성 요인, 경찰관의 태도 요인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둘째, 각 영향요인의 범주 중에 경찰 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찰 공정성 요인(r = 0.538)이었으며, 이어 경찰관의 태도 요인(r = 0.393)이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개인의 가치관(r = 0.077)이나 인구통계학적 요인(r = 0.037)은 경찰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미미하였다. 이는 경찰 신뢰를 위한 정책 또는 홍보 전략을 수립할 때 시민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에 자원을 투입하기보다는 시민 전반을 대상으로 경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일선에서 시민과 접하는 경찰관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데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시사한다.

셋째, 세부 변수 중에서는 경찰의 효과성 인식(r = 0.587)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큰 효과크기를 보인 변수는 경찰 공정성(r = 0.538)이었다. 최근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찰 정당성 이론에 입각한 연구들은 경찰에 대한 효과성 인식과 같은 도구적 요인보다는 경찰활동의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 인식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협력, 신뢰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가나나 일본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에서는 절차적 공정성이나 정당성 인식이 국민의 지지와 협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경찰활동의 효과성과 같은 도구적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장재성, 2020b).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내 연구에서는 대체로 효과성과 공정성 양자 모두 경찰 신뢰나 국민의 지지와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준혁, 2015; 홍승표·라광현, 2019; 임창호, 2020). 본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 역시 이러한 국내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즉,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공정성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중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경찰 효과성 전반에 대한 인식은 경찰 신뢰에 강한 영향을 미치지만, 경찰의 효과성 인식을 구성하는 세부적 요소들, 즉 범죄에 대한 두려움(r = -0.071), 범죄 직접 경험(r = -0.052), 범죄 간접 경험(r = -0.056), 지역사회 안전 인식(r = 0.056) 등의 효과크기는 매우 미미하다는 점이다. 이는 범죄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이나 범죄 및 무질서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세부적 요소보다는 경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이고 추상적 이미지가 경찰 신뢰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별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찰 효과성에 관한

전반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 전략 역시 경찰 신뢰 제고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넷째, 자발적 경찰접촉(r = 0.107)과 비자발적 경찰접촉(r = -0.042)보다 경찰관의 태도와 관련된 친절성(r = 0.478), 청렴성(r = 0.294)이 경찰 신뢰에 미치는 효과크기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 접촉 그 자체보다는 접촉 과정에서 경찰관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선행연구(주재진 2008; 김찬선·강호정, 2012)를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접촉 경위를 불문하고 경찰관이 시민들에게 따뜻하고 공정하며 깨끗한 태도로 직무를 수행할 때 경찰 신뢰는 제고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의 경찰관의 태도는 경찰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도 연관이 깊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공정하고 중립적 판단을 내릴수록 시민들은 경찰이 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Tyler & Sunshine, 2003). 따라서, 현장에서 시민과 접하는 일선 경찰관의 업무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지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1회 측정하는 '공공기관 청렴도'이다. 권익위 청렴도는 경찰과 접촉한 국민을 대상으로 접촉과정에서의 금품, 향응 요구 여부뿐만 아니라 측정기관의 업무처리 투명성, 친절, 만족도 등을 포괄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최근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청렴도 중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청렴도 1등급 기관을 목표로 다양한 반부패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10] 관련 정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면 경찰 신뢰 역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국내 경찰학 분야의 메타분석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11]에서 경찰 신뢰라는 중요한 변수에 대해 선도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경찰 신뢰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이해를 제공하고 그간 연구된 다양한 변수들을 범주화하였다는 점에서 후속연구 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론적 함의 외에도 메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경찰 신뢰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정책 결정권자들이 우선순위 판단에 활용

10) 한국일보, 2021. 6. 14.자, '경찰청, 내년 청렴도 1등급 목표, 반부패 추진계획 발표'

11)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경찰 메타분석'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경찰 메타분석 관련 등재지 논문은 경찰성과에 관한 메타연구(장재성, 2020), 경찰공무원 소진에 관한 메타연구(정보성·최응렬, 2017), 순찰활동의 범죄예방효과 관련 메타연구(염윤호, 2019), 경찰가시성과 범죄두려움에 관한 메타연구(김승현·최응렬, 2020), 총 4건에 불과하다(검색일 '21. 8. 18).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학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미도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이론적·실천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한계점도 존재한다. 가장 아쉬운 점은 연구의 이질성과 조절변수 탐색에 관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사회과학 분야의 메타분석과 마찬가지로 분석대상 연구간 큰 이질성이 존재한다. 이질성의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 연구의 출간연도와 경찰 신뢰 측정방식을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투입된 조절변수와 효과크기의 유의한 영향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다양한 변수를 설정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1. 국내 문헌

경찰청. (2020), 경찰백서.

황성동. (2020), R을 이용한 메타분석(제2판). 학지사.

강지현. (2016), 일반 시민의 경찰신뢰에 대한 연구: 순찰, 출동, 검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8(5): 31-57.

김 구. (2005), 지역경찰활동에 있어서 경찰신뢰의 영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 경찰활동의 성과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3): 49-72.

김수민·전용재. (2021), 경찰과의 자발적 접촉이 신고의사에 미치는 영향: 경찰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8(2): 21-42.

김승현·최응렬. (2020), 경찰가시성과 범죄두려움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9(3): 53-74.

김영수. (2019),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의 향상 방안: 대전광역시 시민 인식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김종길. (2013), 경찰활동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효과성과 공정성 인식이 경찰지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 12(1): 63-86.

김찬선·강호정. (2012), 경찰조직의 치안서비스품질이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지, 1(2): 39-53.

김학범. (2015), 협력치안 활동이 경찰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4): 74-98.

노연상·임창호. (2017), 경찰 신뢰도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 한국과 중국 대학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 16(3): 69-104.

류준혁. (2012), 시민의 경찰에 대한 인식 분석, 사회과학연구, 38(3): 171-200.

_____. (2015),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가 시민의 법준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치안정책연구, 29(1): 133-165.

송영남·최재용·이윤호. (2015), 위계적선형모형을 활용한 국민의 경찰신뢰도 영향요인

분석, 한국범죄학 9(1): 3-32.

신성식. (2006),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안희찬·장현석. (2019), 사업체 종사자들의 경찰신뢰도 연구: 펴현적 시각모형과 도구적 시각모형의 비교, 한국범죄학, 13(1): 115-131.

염윤호. (2019), 경찰 순찰활동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경찰학연구, 19(2): 83-115.

유영현·신성식. (2008),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도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2(2): 337-356.

이미정. (2013), 공공적 가치로써의 경찰 신뢰의 의의와 정책적 함의, 경찰학논총, 8(1): 67-91.

이수창. (2014), 일선 경찰관 재량행위가 경찰조직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조직학회보, 11(1): 83-103.

이용일·장현석. (2020), 경찰에 대한 신뢰도 영향요인 분석: 표현적 시각 모형에서 범죄두려움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범죄학, 14(3): 47-67.

이재영. (2011), 경찰-주민접촉이 경찰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우, 18(3): 27-52.

이헌수. (1999), 국민의 행정 신뢰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2): 37-56.

임창호. (2018), 경찰에 대한 청소년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7(2): 245-276.

_____·김영수. (2018), 외국인 밀집지역 내 거주 주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찰학논총, 13(4): 151-183.

장용진. (2013), 정부신뢰의 원인: 국가간 비교연구, 정부학연구, 19(3): 189-214.

장재성. (2020a), 경찰성과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경찰학 연구, 20(2): 61-91.

_____. (2020b), 경찰 청렴도 제고 방안으로서의 절차적 정의에 대한 검토, 경찰학논총, 15(1): 8-33.

장현석. (2013), 일반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연구: 표현적 시각의 경찰신뢰도 설명

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2(2): 213-236.

_____. (2014a), 경찰에 대한 신뢰도 결정요인: 도구적 시각과 표현적 시각의 비교,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1): 239-262.

_____. (2014b), 경찰 신뢰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 비교연구, 한국경찰연구, 13(2): 311-340.

_____·김소희. (2015),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찰 신뢰도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7(1): 111-136.

정보성·이창배. (2018), 경찰신뢰의 영향 요인에 대한 다수준적 접근: 도구적 시각과 표현적 시각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32(3): 7-44.

_____·최응렬. (2017), 경찰공무원의 소진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경찰조직의 직무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 19(3): 215-238.

조상현·최재용·김순석. (2015), 문화갈등과 경찰신뢰에 관한 연구 : 국내 거주 결혼이민 여성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29(3): 167-198.

조준택. (2020), 다수준 분석을 통한 경찰신뢰 영향요인 탐색, 형사정책연구 31(1): 99-128.

주재진. (2008), 경찰에 대한 민원인의 신뢰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10(1): 329-352.

표정환. (2017), 경찰에 대한 대학생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정호. (1999), 경찰에 대한 조직 내외부인들의 상대적 이미지 분석, 홍보학연구, 3(1): 36-66.

홍승표. (2020), 경찰권 강화에 대한 시민 인식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경찰신뢰의 매개효과 분석 -, 경찰학논총, 15(3): 9-31.

_____·라광현. (2019), 경찰지시 순응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찰신뢰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경찰학회보, 21(6): 203-228.

황의갑. (2013): 황의갑. (2013),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시민들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대도시권 한인들 간의 비교연구, 한국경찰연구, 12(4): 411-434.

_____·민소영·박윤환·장현석·홍명기·조정윤. (2020), 일반시민과 체류외국인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비교 연구 - 중국, 몽골, 베트남 출신 체류외국인을 중심으로 -, 대한범죄학회, 14(2): 25-62.

_____·한성일. (2016),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적 도구적 요인: 한국과 몽골 시민들 간의 비교연구, 한국경찰연구, 15(4): 317-342.

2. 외국 문헌

Borenstein, M., Hedges, L. V. Higgins, J. P. T. & Rothstein, H. R. (2009). Introduction to Meta Analysis. John Wiley & Sons, Ltd.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tity. New York: Free Press.

Hedges, L. V., & Olkin, I. (1985). Statistical methods for meta analysis. New York: Academic Press.

Huang, W., & Vaughn, M. (1996). Support and confidence: public attitudes toward the police, in Flanagan, T. J. and Longmire, D. R. (eds.), Americans View Crime and Justice: A National Public Opinion Surve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Newton, K. (2009). Social and Political Trust. in R. J. Dalton & H. D. Kligenmann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Behavior.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Wolf. F. (1986). Meta-analysis: Quantitative methods for research synthesis. Beverly Hills, CA: Sage.

Aloe, Ariel M. & Christopher G. Thompson. (2013). The Synthesis of Partial Effect Sizes. Journal of the Society for Social Work and Research, 4(4): 390-405.

Brandl, S., Frank, J., Worden, R. E. & Bynum, T. S. (1994). Global and specific attitudes toward the police: disentangling the relationship, Justice Quarterly, 11: 119-134.

Brown, B., & Benedict, W. (2002). Perceptions of the police: Past findings, methodological issues, conceptual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25(3): 543-580.

Cao, L., & Zhao, J. S. (2005). Confidence in the police in Latin America,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3(3): 403-412.

_____, Lai, Y-L., & Zhao, R. (2012). Shades of blue: Confidence in the police in the world,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0(1): 40-49.

Correia, M. E., Reisig, M D., & Lovrich, N. P. (1996). Public Perceptions of State Police: An Analysis of Individual-Level and Contextual Variable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4: 17-28.

DiMatteo, M. R., Haskard, K. B., & Williams, S. L. (2007). Health beliefs, disease severity, and patient adherence: a meta-analysis, Medical Care, 45(6): 521-528.

Egger, M, Smith, D. G. Schneider, M, & Minder, C.(1997). Bias in meta-analysis detected by simple, graphical test, British Medical Journal, 315(7109), 629-634.

Higgins, J. P. T., Thompson, S. G., Deeks, J. J., & Altman, D. G. (2003). Measuring inconsistency in meta-analysis. British Medical Journal, 327: 557-560.

Jackson, J., & Bradford, B. (2009). Crime, policing and social order: on the expressive nature of public confidence in policing,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0(3): 493-521.

Jackson, J., & Sunshine, J. (2007). Public confidence in policing: A neo-Durkheimian perspectiv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7(2): 214-233.

Jang, H., Joo, H. J, & Zhao, S. (2010). Determinants of public confidence in police: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 57-68.

Mayer, R. C., and Davis, J. H., & Schoorman, F. D.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MR, 20(3): 709-734.

Merry, S., Power, N., McManus, M., & Alison, L. (2012), Drivers of public trust and confidence in police in the UK,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cience & Management, 14(2): 118-135.

Mishra, Q. K. (1996). Organizational responses to crisis: The centrality of trust, in Kramer, R. M. & Tyler, T. R. (eds.), Trust in organizations: Frontiers of theory and research: 261-287.

Nix, J., Wolfe, S. E., Rojek, J., & Kaminski, R. J. (2015), Trust in the police: The influence of procedural justice and perceived collective efficacy, Crime & Delinquency, 61(4): 610-640.

Pinquart, Martin & Silvia Sorensen. (2000). Influences of Socioeconomic Status, Social Network, and Competence on Subjective Well-Being in Later Life: A Meta-Analysis, Psychology and Aging, 15(2): 187-224.

Ren, L., Cao, L., Lovrich, N., & Gaffney, M. (2004). Linking confidence in the police with the performance of the police: Community policing can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3: 55-66.

Rosenthal, R. (1979). The file drawer problem and tolerance for null result, Psychological Bulletin, 86, 638-641.

Sampson, R. J., & Jeglum-Bartusch, D. (1998). Legal cynicism and tolerance of deviance: The neighborhood context of racial differences, Law and Society Review, 32(4): 777-804.

Scaglion, R. & Condon, R. G. (1980). The structure of black and white attitudes toward police, Human Organization, 39: 280-283.

Skogan, W. (2009). Concern about crime and confidence in police: reassurance

or accountability?, Police Quarterly, 12(3): 301-308.

Sunshine, J., & Tyler, T.R. (2003). The role of procedural justice and legitimacy in shaping public support for policing, Law and Society Review, 37: 555-589.

Taylor, R. B., & Lawton, B. A. (2012). An integrated contextual model of confidence in local police, Police Quarterly, 15(4): 414-445.

Tyler, T. R. (2004). Enhancing police legitimac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3(1): 84-99.

A Meta-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n Korean People's Trust in the Police

Jang, Jae Seong*

Public trust in the police is a very important foundation of the police. Domestic prior studies have found many factors that affect public trust in the Korean police. In this study, a meta-analysis was conducted on that factors. For the research goals, prior studies were reviewed systematically and meaningful implications were founded through a meta-analysi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r) was used as the effect size for meta-analysis. The studies used in meta-analysis are 41 quantitative studies on trust in the Korean police. And. these papers were selected by the PRISMA procedure. The 33 variables extracted in the previous study were classified into six categories: ① demographic ② instrumental perspective ③ expressive perspective ④ personal values ⑤ police fairness ⑥ police officers attitude factors. The effect size by category and variable was calculated. The meta-regression was conducted using year of publication and measuring method on trust in the police(single item / complex item) as a moderators. The evidence shows that: First, the category that has the biggest effect size on trust in the police is police fairness factors. On the other hand, the personal value factors and demographic factors has a tiny effect size on trust in the police. Among the variables, police effectiveness awareness, police fairness, kindness and integrity of police officers have high effect size on trust in the polic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creasing the overall awareness of police effectiveness and fairness rather than public relations polici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itizens helps to enhance people's trust. It is also important to improve the attitude of police officers in contact with citizens on the front line.

* Department of Police Science i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 key words: Trust in the police. Meta-analysis, Police fairness, Police effectiveness, Effect size

투고일 : 8월 24일 / 심사일 : 9월 30일 / 게재확정일 : 9월 30일